



...우리의 目標...

- 1 在日僑胞의 救靈
- 2 祖国統一의 實現
- 3 韓·日兩國의 和解

復活과 十字架의 榮光

丁 仁 寿 <平野教会牧師>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만민게 새 소망을 주고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육체는 제한이 있다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혼의 부활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끝날에 얻게 된다 이것을 성서에서는 두째 사망이라고 한다 이 두째 사망에 부활을 얻는자는 영원히 죽음에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와같은 영생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 만 인간을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까닭에 이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라 하기 보다 영광의 십자가라고 생각한다 구약복음二三장 三三-三五절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고 서서 보고 있다 고 하였고 갈나디아 六장 一四절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십자가는 비극이라고 하기 보다 그 속에 깊은 섭리가 있어 십자가 밑에 서서 우리의 고마를 그로 향하고 십자가를 쳐다볼우때에 우리는 사랑을 깨닫고 신생애를 보내게 된다 십자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그 소리를 듣게된다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 소리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이다 우리들이 누구에게 대하여 용서할 마음이 없을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빛과 뜨거운 기도소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여야

한다 죽음에서 다시 살신 영광이 크지만은 타인을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십자가의 영광이 더욱 빛나는 것이다 이와같이 희생의 영광에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영광의 부활은 없었을 것을 생각할때 결국은 십자가가 더 영광이라는 것이다 자식의 생명을 구출코저하여 자기의 현역을 뺏아 넣었을때 침상에 누어있는 그 얼굴이 비록 창백하나 실로 광채나는얼

굴로 보이는 것이며 보다 아름답고 빛나게 보이게되는 것이다 희생은 사랑의 《磁力》이요 영광인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마지막때에 그 배후에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뚜렷하게 서 있는것을 생각하고 우리들기독자는 먼저 타를 위한히 생의 자기십를 택할때에 이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고 곧 영광의 십자가로변하는것이다

현대社會의 多樣性과 敎役者像의 多樣性

現代社會의 多樣性과 敎役者像의 多樣性

李 仁 夏

기보된 바와 같이 금년에 와서 두 젊은 교역자가 목회자 아닌 방면의교역에 취임되었다 즉 이태우《李泰雨》전도사의 동경한국YMCA부간사 취임과 최중식《崔忠植》강도사의 경도 애육회주사 취임이다

교회안에서 되여지는 이와같은 경향은 무심히 받아드릴 일들이 아니다

재래의 교회는 복음전파와 교육의 사명을 개교회로 중심으로 하는 목회적교역을 통하여서 만이 감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왔다 이와같은 재래관념은목회자 뿐만 아니라 모든교인의 머리속에 아직 동후하게 채워져 있다 물론목회적 교역의 중요성은 아나 오늘의 교회 그 놓여있는 사회의 변동에 눈을 돌려야할 것이다

오늘의 사회의 특색은 중첩된 다양성에 있다 현대 사람은가족관계 여러가지 조직 단체관계의 중첩된 사회에서 다양성을 가진 교제를 갖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교회의 사명—선교 교육 봉사—를 감당 하자면 다양성을 가진 교역이 전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재일동포사회는 문제의 다양성을 볼때 교회는 동포의 모든 생활방면에 복음을 미치게

하자면 다양성 있는 교역자상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작년도 교역자 수양회시에 이런 교역자상의문제를 논의하여 금번 총회 임직원회에서는 장시간 일의로 삼기 두 교역자를특위한 방면에 추천하게된일은 총회 산하교회에서의회기적인 일이었다고 볼수있다

이런 교역자들의 총회내소속이 아직 확립되지 못하였으나 위선 전 교회적으로 새 움직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바들어 줄이진급이 요청 되는 바이다

《재일대한국독교총회총무》

船橋教会牧師館 再建募金運動

구 十二月 三十八일 실회로서 목사관 이층을 재건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맹렬휘목사와 후나바시교회 교인들에게 남보가 전하여졌다 정월 총회 임직원회에서는 구 九월 태풍피해로 파괴된 교회당 재건의미 정리금과 후나바시 목사관 재건을 겸하여 七十만원 모금을 총회산하 각 교회에 할당 의뢰하였다 지금 그 성과가 총회 회계에게 거두워지고있다

宣敎60周年

準備伝道大会大盛況

講師에 韓景耘牧師



재일교포에 복음의 씨가 심어진지 六〇년을 내년에 맞이하는 재일대한국독교회는 제六〇년사업의 하나로서 금번 기독교계의 세계적 거성 서울 영락교회 환경직목사를 피서고 경관 신지구교회연합 예배를 봤다

이날 <二月 二十六日>大阪女学院장당에는 정각 오전 十一시에 벌써 정석 약 1200석이 가득히 찼었다 정인수목사의 사회인도로 한목사의 설교를 중심으로 짜여진 예배순서가 엄숙히 진행되었는데 한목사는 요한복음 14장 1절~6절을 인용하고 『대도시안에는 여러가지의형락이 가득하며 거제는 죄가있다 공포와 불안이 있으니 거제 벗어날길은 다만 그리스도 밖에 없다 원컨대 그리스도안에서 구원받은 생활을 통하여 민족의 진실성을 세상에 간증하기 바란다』고 했다

오전예배가 필한후 이어 음악무대가 고오배교회 김경찬목사의 사회로 오오사카니시나리구에 있는 민족학원금강학원의 소년소녀합창을 비롯하여 이 화자(니시나리교회) 양의 산산즈곡 알레그로 소나타 독주로 주의 영광을 높이 찬양 하였다 후반 오오사카야신교회 남영우목사의 독창과 이근성군의 바이올린 독주 그리고 장흥자 아시자와다카고양의 이중창등

으로 다채로운 전무로가 오오사카 기독교봉사단의 땀을 악가운데 막을 거두웠다

오후예배는 세시 25분 최정수목사의 사회로 시작했었다 예배는 판서지방 연합성가대의 대찬양에 이어 환경직목사는 로마서6장 23절의 『죄의값……』을 중심으로 말씀을 강해 설교하셨는데 『죄가 나를 사로잡기전에 내가 먼저 죄를 찾아내고 고백하여 새로 난 자가 되라 죄의 값은 사망이나 회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바라는 재일교포 하나하나가 죄 안지는 자들이 되어 일본에 대하여 세계에 대하여 주의 구원에 사는 자의 간증을 하기 바란다……』고 대충말한후 직석 거수로 죄의 고백과 새로운 생활의 결심을 표시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다음 부인전도회 판서지방연합회로부터 한목사에게 드리는 꽃다발이 동 회장 김주일집사 손수 진정됨으로오전 오후에 걸쳐 대대적으로 거행되었던 선교60주년 준비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사진 환경직목사)

京 集 都 會

환경직목사는 이날 오오사카에서 두차례의 설교로 피로한 가운데 있었으나 불구하고 거리관계로 연합예배에 참석치 못했던 교오도교회일등을 위하여 이어 밤집회를 인도하셨다 교오도교회교우들은 오전에는 연합예배와 같은뜻으로 170명이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밤에는 한목사의 하나님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시라는 강조에 한층 감명이 있었다 한다

池東植牧師外十一人執筆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再版▼ 46版 208面 46版 208面		포스틱 著 金夏泰 博士 譯 젊은 知性人에게 ▲再版▼ 46版 256面 46版 150面		金正 俊博士 譯 어거스틴 懺悔錄 ▲七版▼ 46版 280面 46版 150面		토마스 아 켈피스 著 그리스도 본반아 ▲五版▼ 46版 288面 46版 130面		金春培 牧師 著 殉教史 話集 ▲五版▼ 46版 312面 46版 150面		金鍾商 先生 著 이것이냐 저것이냐? 46版 252面 46版 150面		一九六五年度 韓國의 講壇 46版 262面 46版 150面		柳東植 教授 著 韓國宗教와 基督教 46版 278面 46版 250面		尹聖範 博士 著 基督教와 韓國思想 46版 276面 46版 250面		蔡弼近 牧師 著 哲學과 宗教의 對話 430面 300面	
서울特別市鍾路二街九一 財閥 法人 大韓基督教書會 對替 서울 一三九番		우리 의 믿음은 마저서 무엇 을 왜 어떻게 믿는가 하고 묻 는다던 불평에 대답이 잘 나 오지 않았음에도 모른다. 자기 의 信仰內容에 대하여 개 지 못하여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한 신앙 문제들에 대한 敎界指導者 의 명확한 대답을 남기지 하여 놓은 것이다.		科學化를 原理로하는 西歐文 明이 들어간 나날에서 基督 敎에 關하여 많은 問題에 부딪히고 있다. 이 책은 그 러운 現代知性人의 宗教經 験을 解決하여 眞正한 信仰經 験에 들어가게 한다.		世界三大 懺悔錄 中에서 고 뜰가는 名著 人生問題로 고 민하며 各地를 遍歷한 聖者 의 內面記錄이다. 片을 거듭 하기 일췌. 別책, 片에 新 體活字로 새로 組版했다.		그리스도교는 殉敎者의 피로 이루어진 十字架의 종교이다. 이 책은 초대교회로부터 오 는데 이르기까지의 敎會史 名의 初代敎會編 宗教改革 代編 韓國교회編으로 나 어 나루 되어 있다.		敎會史 學校生을 위한 說敎集 多年 學生會 靑年들을 爲한 說敎한 說敎文 一〇〇 編 信仰의 決斷을 促求하는 體験의 記錄 聖經을 平易 을 일여 주는 特色 있는 새로 說敎集.		한국의 各種宗教, 巫敎, 佛 敎, 儒敎, 天道敎 등을 檢討 한後, 基督教과 當面한 問題 點과 課題를 提示하였고 宜 宜의 敎育的 達成에 있어 子의 理解를 促求한다.		한국에 들어온 基督教은 한 國의 固有한 思想과 어떻게 接觸하였는가? 그리고 敎會 의 信仰과 社會의 文化는 어 떻게 發展하였는가? 이러한 問題를 神學者 尹聖範博士 多角度로 分析 研究하여 論 文을 썼다.		著者는 우리나라 風土의 學 者로 說敎家이다. 哲學과 宗 敎와 神學의 全分野에 걸쳐 豐富한 敘述을 自由로 한 著 洋學에 있어 造詣가 著 는 著者는 難題를 自信이 他說과 比較하여 解明하였다.			

民族良心の開発

箴言 14、28 ~ 35

金元治 【西成教会牧師】

五千年の歴史をもつ祖国はその長い歴史の間には外国から羨らやましがられる程の文化と良心的な民族であった時もあったが、今日では、おそらく世界中の国から韓国のような国になることをおそ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と残念で仕方ない。それは国が二ツに分かれていることでも、小国であること文化的に底く貧乏であとかの意味でなく、国民が良心的生活から程遠い生活をしているところに問題がある。日本には、韓国人以外に、中国、米、英、仏、独伊、等の西欧人や東南アジアの人々が多勢住んでいる。その中で一番問題の多いのが韓国人である。刑務所は日本人百人に対して三人の韓国人が収容されている。人口は0.6%、即ち日本人100人に対して、0.6%しかないのである

この良心的マヒは、我が国に宗教がなかったからでもない。仏教は慈悲による神秘的な生活、儒教は道德、礼儀作法を、キリスト教は、国を失った民に慰めと希望と愛による生活を教えて来たのである（第一コリ13:13、出40:38）しかし国民は、その宗教にも満足せず、今日では我利我欲に、若者は世俗化と享楽に耽って、民族も国家もあったものじゃないと、いったような放縦な生活をしているのが、我が国民であり、特に在日僑胞はそうである。ここで私たちキリスト者は民族の良心となって、良心的な社会建設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パウロは、神と人に対して良心的に責めるところのない生活を目指して伝道に励まれた。（行24:16）私たちが民族の良心となるのは、私たち

が良心的な生活をしているからではなく、神よりたまわったこの韓民族として生き、僑胞を愛する心によって（ロマ10:1-3）先ず自分が良心的な生活につとめなければならない。（第一テモ1:18-19）よい教訓とか、よいお話を聞いて、決心したからとてよくなるのではない。キリストが私たちの内に生き、私たちがキリストの内に生きる時にはじめて、この良心的な生活が、神の聖霊の力によって出来るのである。（ヨハネ15:5-7、第一ヨハネ2:6）このようにキリストと結ばれた信仰生活が、義を行う民として、国を高くし、民を罪より遠ざけて、神との深い交りをもつ善良な民族となるのである。（しん言13:22ロマ4:22）

も、在日僑胞の独自の立場と事情を知らない者の見方しかとれない。その様なポイントから、見るポイントが、問題ではないか。説教が、母国語で語られ、礼拝がすべて母国語で、行われているからと言ってそれが、保守的であり、一世の為の教会であると思うのは、理解に苦しむのである。私は、在日大韓基督教会の教牧者の一人として、在日大韓基督教会の六〇年の歩みと特に、戦後に於ける日本の社会状態の急激な変化と、我々韓国人の生活状態の歩みを、考えて見るなら、そう簡単に決められ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明記したい。又在日大韓基督教会員の大部分は

保守的であると、言っているが、それは、一世だから、保守的だと、いうのか二世の中にも、保守的な若者が、大勢いる。一世は保守的で、二世は皆進歩的だということか。それとも二世は、何的ということか。在日大韓基督教会が、若者達に、全然通じない母国語で説教や礼拝が、守られているのでそれを、非現実的で閉鎖的だと、H氏は言っているが、若者達に通ずる言語で、説教や礼拝が守られればH氏の論法を借りて、説明すれば、その言葉の通じない一世には一体どうなるのか彼等には、非現実的で閉鎖的とはならないのか？（続く）

三月カレンダー

本誌前月号の羅曾男先生の「福音宣教に民族は障害なのか？」と言う問いかけは、或る意味では、今日の在日韓国人一世キリスト者の問いかけを代表する発言だとも思われるので、前文を引照しながらもう一度私共の問題として考えて見たい。

「在日大韓基督教総会に所属する指導者だと言われている人々の中に、民族と国家を超越して福音宣教を牧師職の使命として日本で生活をしている子女達を、指導しようとする人々が居る。

僑胞の子女達は、ほとんど日本の国民教育を受けて成長して居る彼らは私達の同胞であると言うことにはあやまりがないが、日本国民教育の中で日本を祖国として成長して来た」云々に始って、「国語を知らぬのにもかかわらず、学ぼうとしない二世達に歓迎を受ける処に勝点のある様に思得る」と言う。誤解もはなはだしい又勝点とは何を意味するのか？まづ私共二世が在日韓国人であってそれ以外の何ものでもないと言うことを明白に認識していただきたい決して、祖国を日本だなど何人も思っていない。一世にとって二世が異質なものの様に思得るのかも知れぬが、私共は一世の中から、成長して来たのである。故に、二世は二世の過去を一世の中に見ることが出来、一世は二世の中にその将来を見ることが出来る。運命共同体である。又忘れないでほしいことは今日各

教会で二つの努力がなされている。それは、在日大韓基督教総会の第二用語である日本語で、時には福音を宣教しつつ、国語を学ぶ努力をつづけて居ることを。

何はともあれ、在日する韓国人であることを強調しこそすれ日本に同化しようなどとは、とんでもない誤解である日本人教会での集会などで、一世の牧師は日本語で祈ることとすれ、二世牧師達は国語である韓国語で祈って居る心の中で、民族反逆者だと言われながら、………と思うしかし、私達にとって彼らが何と理解しようとはやはり、在日韓国人のそれ以外の何ものでもないことを知っている。知って居る故に、自覚された土着化の具体的な方法をみつけ歩みつづけたのである。また反省として、国語の学びの不足が、彼らをして「福音宣教に民族は障害なのか」と言はしめるのならば、私共はもっともっと学ぶ努力をつづけねばならぬ、問題が、とんでもない方向に流れることをおそれねばならない。そこでソウルの潘秉燮牧師の在日韓国キリスト教会の問題点が前後三回にわたって、本誌に語られた。在日韓国人として一世二世にそれぞれの立場から反論をしたいであろう。私として全面的にそれを受け入れがたい

しかし潘牧師は、在日韓国人に対する深い同情と愛情で将来への指針をしめしたのである。故に反対の立場という理由だけでその人格まで非難しないで、充分に語りあってみなければならぬまい。

(寿)

〈在日韓国キリスト教会の問題点〉に問う

金瓊燦

【神戸教会牧師】



＜ 筆 者 ＞

最近韓国から、日本へ数多くの韓国人が、住来するが、その殆どが、在日僑胞の生活状態や、その置かれた立場について何かを感じていることと思う。特に宗教界の方々は、一体在日大韓基督教会は何をしているのかと言いたいのだろう。又、或る人はその問題を取上げて、多角的に議論を進め、在日大韓基督教会にチャレンジしているのである。

最近この新聞紙上に於て、韓国から来られた、H氏の在日韓国教会の問題点と題した文章を読んだが、在日大韓基督教会の教牧の一人として、

責任を感じざるを得ないと同時に、そのH氏の意見に二、三私見を述べて見たいのである。

先づH氏は、教会は誰の為の教会であるのか？と言っているが、教会とは勿論在日大韓基督教会を、指しているのでしょう。

私は、その質問に卒直に答えて、韓国人の集る教会だから韓国人の為であると言いたい。日本の社会がいくら変遷して行っても韓国教会は、韓国教会である。祖国が、南北に分れているからとて、それを意識的に差別して、在日大韓基督教会を、組織したのではない。外側から如何に見られようと我々は、在日僑胞六〇万の為に祈りつつ、福音の宣教を進めているのである。

教会の看板に、大韓民国という文字が、あると指摘しているが、朝聯系の人々の為に、教会の看板に、北朝鮮人民共和国基督教会とも書き入れたら問題は、解決するのか、H氏に反問したい。福音の宣

教は、勿論偏見的であってはならぬことは、百も承知である。それから又、H氏は現代に於て教会は、革命という言葉を使うべきだと主張するが一体何を革命するのか、教会革命という場合、革命というものの意味の取り方が、問題ではないか、なる程H氏の言っている通り教会は、この世の為にあり、全人類の為に、この世に存在している。即、この世の光であり、又地の塩とならねばならない。しかし教会は、昔も、今も、これから将来も、世の光であり地の塩である。なのに、教会を革命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一体何を言わんとしているのか、理解に、苦しむばかりである。

むしろ、H氏の考え方にチャレンジしたい

現在の在日大韓基督教会を見ると、なる程一世信徒が、大多数を占めている。だからといって、在日大韓基督教会が、一世の為のみの教会であると決めつけるのはあまりに

神の宣教と宣教する神の民 (1)

Dr・Hams マルグル

第二十二回在日大韓基督教教会総会記念講演

1966・10・12京都にて

私は、皆様の総会に来て何かを教える様に招かれました。けれども、すでに私はこの会において何かを学んでしまいました。来月末に私は韓国を訪問する計画です。今日の午後ここで、学んだ事は、そのことに非常に役立つことだと思います。ソウルのレストランに入ります場合私は給仕に“キムチ”を注文するであります。今日の午後皆様と座を共にすることは大変幸いに存じます。私は長年にわたって、韓国教会について聞いてまいりました。世界において韓国教会が力強い教会として知られていることは、皆様も知ってよいことでありましょう。

私が三年前に日本に来た時、アジアにおける教会の状況についての会議がありました。その会議では多くの間が出さね、中でも、次のものが重要な間でありました。つまり、アジアのどの地域で教会は伸びて行っているのであろうか、という間でした。答は、教会は韓国と台湾の山地において伸びている、ということでした。ここで、私たちは、教会の成長は単にその教会の力だけにするものではないことを常に覚え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私たちは一つの教会を育てようとするかも知れません。しかし、神が教会を育てるのです。ですから、私たちは常に、まず、神について語らねばなりません。そして第二に教会について語るのです。これが今日の午後、私たちがお話ししようと望んでいることなのです。私は“神の宣教と宣教する神の民、について語る様にと依頼されました。これは素晴らしい演題であります。まずはじめに、“神の宣教、について語り、その次に“宣教する神の民、について語るのが良いと考えます。

“神の宣教、という言葉は少しばかり奇妙にひびくかも知れません。しかし、この第一回目の時間の終りまでに、私たちすべての者が“神の宣教、という言葉が適切な言葉であることに同意すること、と思います。私たちはまず、旧約聖書にもどらねばなりません。私たちは旧約における神の民

イスラエルが、カナンの地に来る途中、丘の上に神殿を見たという記事を読みます。その丘の頂上には神殿があるいは石や木が聖なる物としてあったのでありましょう。これらの丘の頂上には、その国の神々が住んでいたのです。もし人が神からある祝福を受けたいと願うならば、彼らは丘にのぼり、そこで祈らねばなりませんでした。イスラエルの民がこれらの丘を見た時、こう考えました。つまり、自分たちは神のもとへ自ら行く必要はなく、神が自分たちのところへ来て下さるのだというのを、

さて、ここ日本においては神社があり、人々はそこ、つまり神々の住いへと行くのであります。一方、私たちの神は私たちのところへ来たまひ、私たちがかくれているところにおいてでさえ私たちを見つけて出すのであります。イスラエルは私たちの神、つまりアブラハムの神、イサク、ヤコブの神、主なる神とイエス・キリストが一つ所に住みたまわらず、全世界を歩きつ戻りつ動きたまうことを発見したのであります。この方こそアブラハムを約束の地へと導いた神であり、イスラエル人を、エジプトから約束の地へと導いた神であります。後にイスラエルがバビロンに捕えられた時、バビロンの異教の町のそこに神がいますことを、発見したのであります。私たちが、世界のどこにいても神はいましたまいます。

私たちの故祖たちは父祖の墓に拝みに行かねばな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私たちはどこにいても、神を礼拝する事ができます。動きたもうこの神は動いておられる限り、動きたもう神であります。エジプトから、イスラエル人を導いた時の神の働きを思い出して下さい。人々は社会のへりで住み、奴隷になって搾取されていました。しかし、彼らは突然自由へと召し出されたのです。ここでは、エジプト人たちが、地位を占め貧しいみじめな民をを搾取しています。彼らは安い労働力が去るのを好みません。その時、神の働きが示されたのです。

エジプト軍は打ち負かされ、神の民は自由への新しい道を見たのです。この方が動きたもう神であり、神は世界創造の働きをなされ働き続けてきました。神は地と地にあるすべてのものを造られました。そして神は、星と宇宙にあるすべてのものを造りました。神は単に神を信じ、神を知っている人々を通して働くのみでなく、神を知らない人々を通して働きたもうのです。イザヤ書45章を読んで下さい。イザヤ書のこの章には神が異教のつかさや王を神の道具としてお使いになる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神は預言者を通して語り、この力あるペルシヤの男に、“私は神であって私の他に神はない。あなたは私を知らないが、それはどうでもよい、あなたは私の僕でありあなたが行なっていることは、私の定めるとこ

ろによりなされているのである。”と言います。先に言ったように、神は思いがけない方法において働きたまいます。神は神を知らず神を信じない民を通して働くことができるのです。しかし動きたもうこの神の決定的な働きは神が人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た。それ故、神は動きたもう神であり、彼が動いている間働きたもう神なのであります。神は民を送りたもう神でもあります。これは私たちが今日記憶せねばならない重要なことであります。もう一度くり返しますと神が民をつかわしたもうということでした。丁度神がイエスを送りたもうたように、神は使徒と教会をおつかわしになります。神は動き働きます。そして、私たちクリスチャンが一つの部署や一つの行いに留まることを望みません。神が動き働きたもうたように、私たちも動き働くべきなのであります。それ故に神は私たちに特別な仕事へ送りこむのです。民をつかわすことにおいて神は宣教をはじめるのです。神を動き働き送りたもう方として見ることから、最近の神学においては、神は宣教の神 (a missionary god) であ

ると言われてきております。私は私たちが神のことを考える時、私たちが宣教師であるとか、宣教の民であるということだけでなく、神も宣教する神として考えるのがよいと思えます。私たちは神を遠くに離れている方と考えます。

それは誤りであって正しくありません。

詩篇には、神は右手のように私に近いという様な素晴らしい句があります。神は今日の午後、この会議の中に私たちと共にいまし給うのです。しかも神は、私たちが解散してそれぞれの職についている時でも私たちと共にいまし給います。私たちは神のことをあまりに小さく考えてはなりません。ふつう、私たちは神のことを私たちの魂に関係ある方として考えます。しかし、神はただ単に魂のことにのみに関係があるのではなく私たちの全生活、そして全世界に関心を持っておられるのです。二年前に私はたまたまロシアに二週間ばかり滞在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ロシアは、かっキリスト教国であり、今はきわめて無神論者の国であるということを皆様はご存知であります。

ふつう私たちは、神はロシア

在日韓国人の使命

韓国人としての政治的位置

孟 哲 輝

(船橋教会牧師)

何故我々が日本に住むかという過去の歴史的理解は勿論であるが、歴史を神が支配するなら過去を理解より寧ろ、現在神が歴史を創造して行く道々に、我々がここで何をしてそれに貢献するかがより意味のあるものである。その意味で我々の使命は具体的には目前にみる日本人へと、祖国韓国社会への二つの使命がある。

A、日本人への我々

日本人は海の向こうにある現在の韓国及韓国人の理解は殆ど知らない。その上日本人で韓国語を知る人も殆どなく理解し交流しようとする人も少ない。日本人の韓国人理解への良い材料とは在日韓国人である。我々の行動、言語、一つ一つが韓国の外交官の役目をしているのである。このため我々の一つの悪事がすぐ韓国に影響するのである。我々は日本人に対してはレッテ

ルのない無言の中の韓国の外交官になっている。これが一面の我々の使命である。

B、祖国に対する使命

祖国の両民族は良心を持っている人なら統一しなければならぬと云う。事実統一したなら今よりは非常に高度に早急に発展するはずである。しかし現実には南韓で共産主義的言語、行為のようなものさえあらわれたら反逆者といわれ北韓では民族的又は民主主義的言行を表わした者は強制労働送還、又は生命危機に処される。ところが日本の同胞は牧師の息子が朝総連の娘と結婚するからといってそんなに大きな問題にはならない。要するに我々は思想の王国に住んでいる。この良い条件が神が我々に与えた恩恵であると同時に、神が我々に与えた使命である。例えば左、右翼人が同席し対話をし理論的に統一案は主張出来る。そして両

同胞の垣をつぶして行ける。エペソ二章十四に敵意という隔ての中垣を取り除きとある通りこんな運動が本国に報告され本国の人に統一運動のモデルになり理想の型になってやがて本国での現実に移して行けるように訴えて行く。これは在日同胞のみが出来る条件であり神が具体的に与えた使命である。これを決断して成す時、朝総連との和解者になり又祖国への貢献となり、これが神の歴史的支配へ我々の参加になるのであります。この歴史的創造へ我々が参加した時悔ゆる事がなく喜びが来るという保証を示しましょう。勿論、国際政治や軍事的意味からでなく、社会学的な私見であることをまず理解してほしい。祖国統一の日を知っている者はこの世界には一人もいない。しかし社会は統一の日に向かって進んでいる。この事例を示そう。